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815>

JCCT 2023-9-98

도심 재구성에서의 사회 커뮤니티조성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Creation of Social Communities in Urban Reconstruction

루즈옌*

Lu Zhiyan*

요약 현재 중국의 도시 공간은 점진적인 개발에서 재고 변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도시 공동체의 계획 개발 목표도 물질적 공간 건설에서 인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주거생활에 중점을 둔 단일 위도의 지역사회 계획 및 건설은 지역사회 생활 생산의 다차원적 요소를 간과하여 지역사회 간의 냉담한 관계,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형성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글은 지역사회의 시공간적 연속적 통일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중앙과 민간의 여양 명확히 하며, 일상생활의 시작점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역동적인 조성 방법과 방법을 재탐색한다.

주요어 : 도심, 커뮤니티 조성, 도시 리뉴얼, 일상도시주의

Abstract Currently, China's urban space is gradually changing from gradual development to inventory transformatio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goals of urban communities have also shifted from material space construction to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ies and society. Currently, community planning and construction at a single latitude, which focuses on residential life, overlooks the multidimensional elements of community life production, causing many problems such as cold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ies and difficulties in forming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article re-recognizes the sociality of the community in the continuous unification of the community in time and space, clarifies the central and private aspects of the community, and re-explores the dynamic creation and methods of the community as the starting point of daily life.

Key words : City Center, Community Creation, Urban Renewal, Daily Urbanism

1. 서론

글로벌 자본 축적의 모순이 진화하고 공장에서 커뮤니티로 전환되면서 일상생활은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상을 담은 커뮤니티 공간은 도시 갈등과 갈등의 집중

영역이 되었다. 도시 4대 핵심 기능의 기초로서 '주거'는 도시에 진입하고 도시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주요 문턱이기도 하며 '지역사회'는 '주거'의 최소 사회 단위로서 도시 권리의 핵심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것은 건축미학을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 특색의 구

*정회원, 경기대학교 글로벌과인아트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13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13, 2023 / Revised: August 29,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82960818@naver.com

Dept. of Global Fine Art, Kyonggi Univ, Korea

현은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과 생활 습관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지역 사회는 대중의 삶을 수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습관과 인문학적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도시 주거 사회 공간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커뮤니티는 미시적 사회 생활 및 공간 단위이다. 커뮤니티는 공간적 실체로서, 이 수준의 도시 주거 및 생활 공간에는 주거 지역이 포함되며, 커뮤니티는 모두 이 공간의 실체 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공간적 실체의 본질은 공간에서의 일상 생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실체이다. 따라서 계획 관리의 관점에서 도시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 관리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기반한 기능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1]. 동시에 지역 사회는 또한 지역 사회의 특정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고, 관리하는 국가 권력의 기본 대표이다. 따라서 상위 '권력'의 정확한 시행과 대중의 '권리'의 합리적인 실현을 조정해야만 도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II. 중국 커뮤니티 조성의 역사와 현황 분석

1. 지역 사회 조성 과정

신중국 건국 이후 정부는 사회자원의 충분한 지배와 배치에 의존하여 지역사회 계획과 지역사회 관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재고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 주도의 이런 방식은 생태 환경, 사회 공정성, 경제 발전 등 많은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남겼다. 지역 사회 수준에서 지역 사회의 계획 및 관리는 지역 사회 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직접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여전히 계획 방식과 방법의 불편함, 주민의 권리 상실, 행정체제의 제약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 통제적 요소로서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규칙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영역'은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공간에 대한 요구로 더 많이 반영됩니다. 중국 커뮤니티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중앙'과 '민간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전통 시대에 커뮤니티의 형태는 크게 마을, 사회 및 기타 공식 권력 기관과 社倉, 義田, 團練 및 鄉約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거버넌스의 한계로 인해 황권으로 대표되는 상향식 공식 권력은 효과적으로 풀뿌리 거버넌스에 깊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종족과 향신사로 대표되는 상향식 지방 권리와 황권이 병행하여 운영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지방의 종족과 향신사는 공식 정책의 시행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국가 권력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지역 사회 내부 공동체에서 상향식 권리가 실현된다. 신중국 건국 이후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단위대원'을 기본형태로 하는 커뮤니티는 단위를 연결고리로 하여 커뮤니티 내의 생산과 생활을 결합하는 공간조직형태를 구축하였다. 국가권력의 분배에 따른 생산과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도시생활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이다. 개혁개방 후 시장화 과정과 함께 단위 마당의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시장화된 주택 시스템이 커뮤니티를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중국 지역 사회 건설은 지역 사회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일 하위행정자치 수준까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역사회는 정부의 정책기조의 풀뿌리 대표가 된 반면 권리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피드백은 의존도를 잃었고 그 권리의 실현 경로가 차단되었다.

2. 지역사회 발전 현황 분석

費孝通이 제시한 '雙規政治理論'에 따르면 "정치는 결코 위에서 아래로 한 궤도에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건전하고 영속적인 정치는 상통하달과 자유자재로 하는 투트랙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의 진화와 발전을 돌이켜보면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조에서 사회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 '중간 그룹', 특히 현재 커뮤니티 거버넌스에 이 '중간 그룹'이 없기 때문에 거리, 커뮤니티 등 기층 권력 부서가 종종 이상적으로 사회 자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시설로 전환하여 증상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된 많은 정교한 거리 공원은 종종 사람이 거의 없고 주택 아래층의 아름다

은 녹화는 종종 주민들의 옷을 달리는 도구가 된다. 거리커뮤니티는 기층에서의 국가권력의 대표자이지만 커뮤니티 공간 내에서 주민의 삶을 유지하고 조정하며 정부의 기층 거버넌스를 실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커뮤니티 내 생산과 발전을 계획, 조정 및 발전시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주민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 변화된 지역 사회의 내부계획과 건설을 실현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주민생활권은 더 이상 지역사회의 권력기관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과거 도시 증분 대규모 개발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기능은 주거를 제공하고 거주자의 거주 여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재고 개조 단계에서 지역사회는 주거 생활의 좋고 나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도시 재생의 맥락에서 점진적 개발 단계에서 '강제성', '표준', '통일'에 중점을 둔 관리 사고에서 '대화', '반성' 및 '포용'에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커뮤니티 관리'에서 '커뮤니티 조성'으로 전환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도시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지역사회 기관을 '권력'을 분배하고 '권리'를 고려할 수 있는 '중간 그룹'으로 설립해야 한다. 동시에 개발 개념에서 '관리 사고'를 버리고 '경영 사고'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의 관리를 지역 사회 건설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의 공정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III. 일상생활의 시각에 따른 실질적인

커뮤니티 조성

정부 기관에 의존하는 제도 개혁 외에도 지역 사회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필요하다. 커뮤니티 내부의 최소 분자 단위는 '개체'이며, 다른 '개체'는 일상 생활로 인해 커뮤니티 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부 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의 차이와 시간의 동적 전환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적인 불협화음의 형태는 도시민의 실제 삶일지도 모른다.

1. '개체'가 출발점인 '공간 파괴'

레피볼은 사람들의 신체 생활 공간이야말로 공간 생산과 변화의 본질적인 기초이며 공간 파괴의 핵심은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성에 있다고 믿는다. 커뮤니티와 도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개체'는 점차적으로 '개체'에서 주변 '개체'와 연결되어 사회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현재 '개체'가 위치한 공간은 상층부의 권력이 아래로 내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공간에서 동적으로 '공간'과 공간을 파괴하는 '제품 및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괴'는 수동적 수용이 아닌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는 효과를 일으키고 시간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파괴'의 시간적 지속성은 사람들이 지배받는 공간을 탈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공간은 정적인 용기도 아니고, 대중도 자본가와 엘리트층이 내놓은 제품을 직접 받아보는 체험자만이 아니다. 레피볼은 이런 정태성을 부인하며 공간은 살아 있고 대중의 삶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의 모든 공간에 가듯이 말이다. 들어가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일한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니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설치미술, 행동예술을 기차역, 쇼핑몰, 공원 등 공공공간에 배치하면 공간에 대한 '개체'의 일방향성 사고가 오래되면 깨지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구조가 바뀌게 된다.

2. 일상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공간 조성

'다양한 단조로운 공간 파괴'를 넘어 각성자들도 '일상 생활'의 재탄생을 해야 한다. 오늘날 도시공간은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을 이화시켰고, 인류의 과거 일상, 우리의 인간성은 일과 여가를 이렇게 갈라놓지 않고 현대 도시의 일상에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여가를 즐기자"고 말한다. 낮과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과 휴일에는 열심히 여가를 즐기며 생활과 생산을 양분한다. 우리는 도시에서도 교조적으로 그것을 집행한다.레피볼은 이것도 현대 도시의 이화가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이 초래한 도시병은 '일·교통·휴식생활'의 정체성을 끊는 것이다 [2].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전체화된 일상을 찾으려는 시도이며 우리는 작업 공간에서 '오락'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일방적인 생활 공간에서도 자신만

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레피볼의 말로는 "우리 개개인의 가장 절실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파점은 우리의 일상, 신체, 리듬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그래서 레피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온기가 있고 명절이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일상생활도 하나의 예술작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 각 계층의 생활개체로서 자신의 신체와 생활미학을 구축하여 '이화'에서 벗어나 쾌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마다 차별화된 생활미학 성향이 있고, 일방적인 신체와 일상생활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공간의 느낌은 여전히 우리의 지속적인 쓰기를 통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도시의 개인으로서 레피볼은 '순간'이라는 개념도 제시했는데, 생활에서 유래한 즉, 일상생활과는 다른 실천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순간은 경직된 일상을 깨뜨리는 산물적 脫俗 즉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일상적 평범함과 일방성의 무게는 낮아지고 우리의 일상적 소외는 줄어든다. 이러한 순간적인 획득에서 레피볼은 다양한 감각을 통합하는 '리듬 분석'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제안했다. 우리 스스로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의 리듬을 느껴야 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리듬은 우리 몸의 '자연의 리듬'을 방해하고 침범하여 육체의 질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로에락은 식사, 피로, 갈증, 이완과 노동은 본래 자연의 리듬이고 '사회적 리듬', 단방향도, 도구이성, 정확한 계시제도, 레저 오락과 근로시간의 이원적 분할은 우리의 자연 리듬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리듬은 우리 개인 위에 균립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레피볼이 우리에게 공간을 재조명하라고 한 것처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는 현대 도시 사회 리듬도 나의 새로운 신체 생활로 인해 약화되어 내가 느끼는 사회적 리듬을 바꿀 수 있다.

3. 차별성 출현 존중, 대화체제 구축

레피볼은 도시계획 건설의 권력을 쥐고 있는 전문가이자 지식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대중과 구별할 수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이 하찮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의 영원성' 대신 화려한 수사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 평범한 중간지대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4]. 일상도시주의는 도시를 정의할 때 명확한 물리적 형태보다 삶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커뮤니티 조성의 진정한 임무는 커뮤니티를 미화하거나 완벽하게 관리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대중의 커뮤니티가 되어 대중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며 일반 대중을 섬기고 일상생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추상화 원칙에 기초하여 확립된 전문 설계 기술의 성과를 비판하며, 임의 대량 번식을 위한 추상화 개념 설계는 지속적인 복제 및 추론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서 사람들의 시각적 무질서를 알게 비판한다 [5].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어떤 의도로 공간을 점점 더 균질하고 전문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실제 삶을 포용할 수 없다. 차별성에 대한 이런 피상적인 인식은 바로 '권력'에 영합해 '권력'을 무시하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 [6].

따라서 상위 전문가들의 '권력'은 지역사회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전문 디자이너들도 권위가 아닌 상식에 기반한 커뮤니티 공간을 재조명하고 개조해야 한다. 또 다수(커뮤니티 대중)와 소수(정부기관) 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유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대중의 발언권은 의견 수렴과 설문지 피드백 단계에 머물지 않고 공동 피드백의 변형과 공동 노력을 통해 조화롭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IV. 결 론

커뮤니티는 주로 도시 대중의 일상 공간을 운반하는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내부 활동 자체는 구성 공간의 함축성이 풍부하며 일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은 커뮤니티 내부 구조와 관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상호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지역사회 기관을 분배하고 행정자치를 고려할 수 있는 중간 그룹으로 설립해야 한다. 동시에 개발 개념에서 '관리 사고'를 버리고 '경영 사고'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의 관리를 지역 사회 건설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의 공정하고 조화

롭고 유기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실생활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지역사회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미래 지역사회 건설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References

- [1] Restoring Multidimensional Space Justice: Evolving Practice and Future Extension of China's Urban-rural Relationship[J]. Jia Xiufei. *Journal of China Geological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2021(04)
- [2] The Real Dilemma and Solution Path of Urban Governance in China under the Visual Threshold of Space Justice. Anna Wong. *Theory and Modernization*, 2018 (05)
- [3] The Real Dilemma and Logical Approach of Urban Space Governance in China Chen Honglian and Li Hui-ling. Dongyue On Cong, 2022(03)
- [4] Spatial Identification: Knowledge Frontiers, Trends and Inspirations in Urban Spatial Research[J]. Guo Wen. *Geography*.
- [5] The Inner Logic Analysis of Political Construction of National New Area Scale[J]. Wang Xuan; gorgeous. *international urban planning*
- [6] Chen Zhao, Wang Huan and Qian Hui. Returning to Space: *Chinese Community Bui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ights*[J]. *Town Planning*, 2021, 45(11): 28-35.